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대한민국 보통 가족을 위한 독서 성장 에세이

책과 함께한 가족 위기 탈출 프로젝트

파업에 뛰어들어 아빠, 직업병으로 회사를 그만둔 엄마. 바쁜 엄마 아빠를 좋은 엄마 아빠로 바꾸고 싶은 두 아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 가족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책. 엄마 아빠는 주말만 가정 형편에 따라 유치원도 학원도 그만둔 아이들과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함께 읽으니 공감하고 소통하게 되었고, 마침내 가족이 동반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일곱 살이던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세 살 작은아이가 일곱 살이 되는 꼬박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과 함께한 가족의 기록이다. 이들이 만난 인문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책장 속, 동네 도서관 책장에 꽂힌 책 속에 있었다. 소명, 우정, 배움, 국가 등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10개의 주제와 함께 읽을 책을 가려 뽑아, 일상생활 속 에피소드와 생생하게 연결해 구성했다. 대한민국 보통 가족에게 권하는 독서 성장 에세이가 그려진다.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와 각 주제에 꼭 맞는 책들이 연결고리를 이루어, 보는 이에게도 공감을 끌어낸다. 인문학의 바탕이 되는 보편적인 주제들이기에 일반 대중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쉬운 인문학 입문서로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정은, 유형선 지음 | 248쪽 | 14,000원 | 휴머니스트

불필요한 것과 헤어지기

걱정거리의 90퍼센트를 없애는 46가지 마음 정리법

한 가지를 버리면, 한 가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매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우리는 걱정 하나씩을 안고 산다. “잊어버려!”라고 스스로 다짐해보다가도, 어느새 고민을 해결하려고 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애쓰다가 지치고, 또 다른 고민거리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고민, 걱정, 불안, 초조의 쳇바퀴 속을 돌고 또 돌고 있다.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저자의 대표작으로 떠오른 『불필요한 것과 헤어지기』. 이 책에서 저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내 길을 제대로 걷고 싶다면 일단 쓸데없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고민과 완전히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준다. ‘털어내기, 내려놓기, 잊기’를 기억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몸과 마음뿐 아니라 내 주변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삶에서 한번쯤 겪게 되는 불필요한 불안, 걱정, 경쟁, 나쁜 인연 등과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과의 이별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진정 나에게 필요한 삶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스노 슌요 | 장은주 옮김 | 228쪽 | 13,000원 | 웅진지식하우스



알수록 정치적인 음식들

음식으로 들여다본 글로벌 정치경제

음식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속에 숨겨진 글로벌 정치경제의 흐름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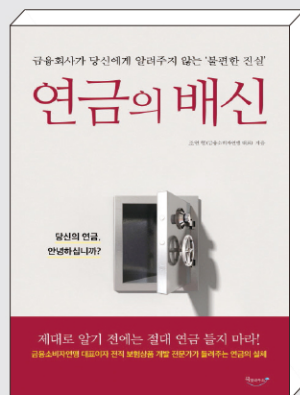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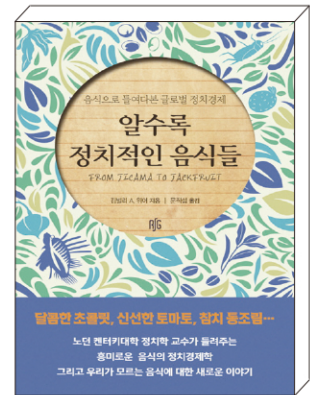
매 끼니 밥상을 마주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들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가공되어 우리 식탁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커피콩이 누구의 손에서 수확되었는지,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를 먹으며 이 토마토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간편하게 참치 통조림으로 한 끼 반찬을 해결하면서도 참치가 잡히는 바다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알수록 정치적인 음식들』은 ‘음식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정치경제학 강의를 해온 저자가 세계 음식공급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음식 재료의 숨겨진 진실과 그 안에 담긴 경제학적인 의미를 해석해준다. 음식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한 국가의 권력적 수단이 되기도 하고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기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국제 통화시스템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이 책은 모든 장에 걸쳐 평소 접하지 못하는 특이한 음식 재료들(잭푸르트, 히카마, 치아시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게다가 각 장마다 특정 음식과 관련된 결론과 함께 폭넓은 시야의 확장을 돕는 토론 주제가 주어진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간편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특정 음식과 그것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경제적인 연관성, 정치적 이슈 등을 생소하지만 재치 있게 풀어낸 이 책은 독자들에게 전혀 지루하지 않은 정치경제학 강의가 될 것이다.

● 김벌리 A. 위어 | 문지섭 옮김 | 404쪽 | 18,000원 | 레디셋고



연금의 배신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금융회사의 꼼수에 놀아나지 않는 진짜 연금 재테크

정년퇴직은 물 건너가고 은퇴 후의 삶은 불안한 세상이다. 더 이상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누구든 노후준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요즘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연금이다. 무수히 많은 개인연금상품을 쏟아내는 금융회사들은 자사의 상품에 가입하기만 하면 장밋빛 노후가 펼쳐질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가입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연금의 배신』은 저자가 15년간 접해온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이자 전직 보험상품 개발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현 가능성 없는 개인연금상품의 뺑뺑이 수익률을 비롯해 금융회사에서 떼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정체를, 별 생각 없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에 숨겨진 치밀한 꼼수 등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연금의 실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입절차 10계명부터 복잡한 약관을 효율적으로 보는 요령,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철회하는 절차 등 연금에 들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수익 낮은 연금저축을 손실 없이 갈아타는 노하우 등 이미 연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조언이 들어 있다. 이제 두 눈 크게 뜨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진짜 연금 재테크를 시작해보자. 소중한 내 연금, 아는 만큼 지키고 불린다!

● 조연행 지음 | 312쪽 | 14,500원 | 북클라우드